

세네갈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Senegal

2022. 1.

관계부처 합동

본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 차

I. 전략적 중요성	1
1. 전략적 중요성	1
2. 개발협력 수요	2
3. ODA 추진 SWOT 분석	3
II. 수원국 분석	5
1. 국가개발전략	5
2. 수원체계	8
3. 수원국 거시 분석	9
I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1
1. 기본 방향	11
2. 분야별 수요 분석	13
3. 분야별 지원 방안	21
4. 이행점검방안	26
IV. 이행전략	28
V.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31
1. 모니터링 방안	31
2. 평가계획	32

I. 전략적 중요성

1 전략적 중요성

- ☞ 민주적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안정 기반, 서아프리카 지역 내 중심국가 역할 수행
- ☞ 연평균 5% 수준의 경제성장세 등 경제, 개발, 문화 등 양자 교류협력 기회 다대

○ (서아프리카 지역 거점)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역내 거점국가 역할 수행

- 아프리카연합, 사헬-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등의 회원국으로 적극적인 외교정책 수행중, 서부 아프리카 경제통화연맹 (UEMOA)과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회원국으로 지역통합에 적극적
- 독립 후 비동맹 중립노선을 견지하며 아프리카 지역 통합 활동에 적극적이며,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대상으로 무상원조 획득 등 경제 실리 추구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중
-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의 지역거점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역내 평화구축 활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인근 국가 및 서아프리카지역 내 중심국가로서 자리매김 중

* UNDP 서중부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UNICEF 서중아프리카 지역사무소, UNESCO 서아프리카 (사헬지역) 지역사무소, Oxfam 서아프리카 지역사무소 등

○ (경제성장 및 민간투자 기회) 정치적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려,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검토 가능

- 세네갈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의 협의 하 경제구조 조정 계획을 추진, 1995년 이후 연평균 약 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외국 투자 유치, 공기업 민영화, 시장경제 육성 등을 통한 경제개발 노력중
- 세네갈부상계획(PSE) 2기 경제정책을 통해 ① 민간부문 개발을 통한 지속적·통합적인 성장 ② 신중한 예산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건전성 강화 ③ 화석연료 산업의 지속적·투명한 관리를 도모

- (사회개발 및 균형발전) 세네갈 통계청에 따르면 빈곤인구 비율이 '11년 42.8%, '18년 37.8%을 기록하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농간 큰 발전 격차가 존재
 - 도시 지역 빈곤율은 24.9%로 나타난 반면, 농촌 지역의 빈곤율은 66%('16년), 절대빈곤층 1/3 이상 내전지역이었던 카자망스 지역에 거주중
 - 세네갈 통계청 '1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농 간 초·중등학교 등록률 격차가 큰 편(도시지역 96.3% - 농촌지역 68.6%)이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
- (보건의료) 보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보건시설 및 의료 인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며 농촌 지역일수록 의료혜택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
 - * WHO는 보건 예산을 총 예산의 9%로 확대를 권고, '16년 기준 보건 예산은 약 5%에 해당
- (인프라 개발) 세네갈도약계획(PSE) 2기 액션플랜(PAP)상 기존 마키 살 정부의 인프라 중심 개발정책을 유지, 교통인프라(33%), 에너지(12%), 식수위생(10%), 농업(7%), 교육(5%)을 우선순위로 투자할 예정
 - 세네갈 거시경제 분석문서 “집중·안정·성장·연대를 위한 다년간 프로그램 ('18-'22)”에 따르면 교통·운송개발이 국내 총생산(GDP)의 4% 차지
 - '25년까지 1,000MW이상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여 농촌지역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
- (민간부문 개발) 현 정권은 대외원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제도 수립 및 인센티브 강화에 노력
 - 세네갈은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Doing Business 2020에서 123위를 차지, '19년에 비해 18단계 상승
 - 기존에 주요 인프라개발사업은 상업차관 및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되었으나, 최근 세네갈 정부는 부채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가적인 차관(양허성차관) 도입에 신중한 입장

□ 한국 對 세네갈 관계

- (외교관계) 1962년 10월 수교(북한과는 1972년 9월 수교)
- (주요 협정체결) 무역협정(1975), 문화협정(1979), 경제기술협력협정(1979), 투자보장협정(1984), 봉사단과견협정(1997), EDCF 협정(2008), 무상원조 기본협정(2016)
- (교역현황) 對 세네갈 무역형태는 공산품 수출 및 1차 상품 수입 구조
 - －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교역규모는 1억 1,821만 미불로 수출은 자동차, 화학, 섬유제품, 가전 등을 중심으로 7,747만 미불, 수입은 어류, 수산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4,074만 미불을 기록
 - － 세네갈산 갈치¹⁾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이며, 한국이 세네갈로부터 수입하는 액수(4,074만 미불, 2020년 기준)의 약 90%를 어류 및 수산가공품이 차지

< 對 세네갈 교역 현황 >

구 분	2018	2019	2020
수출(만불)	11,936	8,544	7,747
수입(만불)	5,927	4,904	4,074
총교역량(만불)	17,863	13,448	11,821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1) 세네갈 갈치의 한국 수출액은 4천 8백만불, 10,772톤(2016년 기준)

□ 對 세네갈 ODA SWOT 분석(지원시 고려사항)

		강점 S	약점 W
		내부역량	외부환경
기회 O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및 PSE와 일치된 사업 분야 및 중점분야 지원을 통해 축적된 경험, 교훈, 파트너십 • 분야에 따른 사업지역 집중(중·북부)으로 역량 집중 및 가시성 다대 •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ODA 사업 기획, 관리, 평가 역량 • 다양한 모달리티 보유 및 활용 • 무상원조기본협정에 의거한 ODA 사업의 제도적 기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 가능한 역량있는 국내 파트너 확보 어려움. • 중앙부처 고위급과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 미흡 • 분야별 전문 기술 인력(technical staff) 부족 • 지역접근성 문제로 인한 신규 사업지역 확장 어려움
	기회	S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검증된 기존 분야 내 파이프라인 사업 발굴 및 지원 • 분야별 집중 지원 사업지역 확대로 가시성 제고 • 모달리티 간 연계추진(유상/무상), 봉사단파견, 연수, 민관협력,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수행기관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조달 및 원조방식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검증된 수원부처 대상 PBA 방식 적용 검토 및 실시 - 역량있는 현지 파트너(INGO, 국제기구) 발굴 • 개발협력에 대한 기획 및 관리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위협 T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Donor의 대규모 (인프라 중심) 원조 사업 발굴 및 협력국의 관심 집중 • 부채비율 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지원 부족 및 사업지속성 확보 어려움 • 공여국 간 원조 부조화 • 확대·심화되는 원조 분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한 사업성과 및 리스크 관리 • 분야별 공여국회의 및 주요 공여국회의 정기 참여로 원조조화 기여 및 원조동향 파악 • 타공여기관 등과의 연계사업 추진 검토
	위협	S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별 R&R 분석 및 단계별 이양계획 수립 • 공여국 협의체 적극 참여 통해 원조 조화 추구 • 공관중심 분절화 완화 및 융합연계사업 적극 추진 	WT전략

II. 수원국 분석

1 국가개발전략

- 세네갈 정부는 '18.12월, 제1차 세네갈부흥계획('14-'18)의 뒤를 잇는 국가 중기개발정책인 제2차 세네갈부흥계획(Plan Sénégal Émergent '19-'23)을 새롭게 발표
 - '법치와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35년까지 중소득국에 진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2기 추진 전략으로, 제1차 PSE를 고안한 마키 살 대통령이 19년 재선됨에 따라 국가개발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동력을 확보
 - 제2차 PSE는 경쟁력있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발전을 전면에 제시하고, 인적자원 개발,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거버넌스, 공공기관 효율성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성을 제시
 - * 기존 정부의 인프라 중심의 개발정책을 유지하고 PPP를 통한 민간투자 및 민간부문 개발 강화의 중요성 강조
 - 생산성 향상 및 사회적 불평등 감소를 통해 ▲'19~'23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9.1% 달성, ▲'23년까지 1인당 GDP 3,341달러로 향상, ▲연간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

<제2차 세네갈 부흥계획(2019-2023) 주요 지표>

지표	단위	현황(기준 연도)	2023년 목표
GDP	백만 세파프랑	13,407 (2018)	22,718
1인당 GDP	달러*	2,470 (2017)	3,341
빈곤율	%	35.6 (2017)	29.9
연간 일자리 창출	개	199,980 (2017)	228,327
1,000명 당 영아사망률	명	42 (2017)	29.2
5세 이하 아동 영양실조 비율	%	9 (2017)	4.6
전기 보급률	%	61.7 (2017)	85.9
농촌 전기 보급률	%	37.2 (2017)	81.6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	25.7 (2016)	46.4

- 제2차 PSE는 ▲경제구조 변화 및 경제성장 ▲인적자원, 사회보호,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제도, 평화·안보를 경제발전의 3대 축으로 삼아 각 분야별 발전 전략 및 측정지표를 제시
- 세네갈 정부는 국제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서 중시하는 사회경제지표를 개선시키고자 하며, 각 전략목표와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아프리카연합(AU) Agenda 2063의 세부목표를 제시

〈제2차 세네갈부흥계획(2019-2023) 분야별 전략목표 및 SDGs 연관성〉

구분	전략목표	관련 SDGs 세부목표	관련 Agenda 2063 세부목표
경제구조 변화, 경제성장	①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분야 육성 및 수출 촉진	2, 8, 9	4, 5, 6
	② 투자 규모 및 효율성 증진		
	③ 양질의 인프라 개발	9	10
	④ 에너지 및 토지 접근성 개선		
	⑤ 생산성 향상 기반 강화	4, 5	2
	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4
인적자원, 사회보호, 지속가능발전	① 국민 건강 증진	3	3
	② 양질의 교육 제공	4	2
	③ 연구개발 촉진	9	2
	④ 양질의 기초 사회 서비스 확대	3, 4, 6, 7	1
	⑤ 정주지 환경 개선	11	4
	⑥ 양질의 일자리 확대	8	5
	⑦ 인구변화 가속화 ²⁾	3, 4	1, 18
	⑧ 해외 이주 인구 관리 개선 ³⁾	10, 16	1, 5
	⑨ 사회보호 개선	1, 2, 5, 10	17, 18
	⑩ 기후변화 대응	11, 13, 14, 15	
거버넌스, 제도, 평화·안보	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7
	② 법치 강화 및 시민의식 개선	16	12
	③ 평등 및 젠더 평등 촉진	5	11, 12
	④ 평화 및 안보 공고화	16	
	⑤ 영토 통치 강화		13, 14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2018), Plan Sénégal Émergent-Plan d' Actions Prioritaires 2019-2023

- 2) 세네갈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장기적으로 인구성장을 억제시키고자 하며, 가족계획 강화, 성·출산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해 2017년에 출산율 4.6명, 인구부양비 84%였던 것을 2023년까지 각각 4명, 83%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République du Sénégal(2018), Plan Sénégal Émergent - Plan d'Actions Prioritaires 2019-2023, p.14, 81)
- 3) 현재 해외로 이주하는 세네갈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며, 이주정책 개선, 연례 이주정책 평가 보고서 작성, 불법 이주 통제, 이주대상국과 다자·양자 협력 확대 등을 계획중임. (République du Sénégal(2018), Plan Sénégal Émergent - Plan d'Actions Prioritaires 2019-2023, p.82)

- 세네갈 정부는 제2차 PSE와 함께 각 부처 및 정부기관에서 PSE의 주요 정책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할 주요 사업 및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제2차 우선순위 사업계획(PAP: Plan d'Action Prioritaire '19-'23)도 발표
- 인프라 확대, 공공·사회 서비스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업들을 PSE의 3대 중점분야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으며, 제1차 PAP에 비해 민간 분야 개발 및 민관협력 확대를 강조
- 전체 예산 중 경제분야 사업에 60%가 집중되어 있고, 사회분야에 29%, 거버넌스 분야에 11%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1차 PAP 대비 사회,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다소 증가

〈세네갈 제2차 우선순위 사업계획(2019-2023) 주요 프로젝트〉

구분	예산 비중	세부 분야	주요 프로젝트
경제구조 변화, 경제성장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에너지 · 농·축산·어업 · 농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송신·배급선 건설 프로그램 · 역내 고속열차 프로젝트(TER) · 농촌지역 전력보급 프로그램 · 국가 쌀 자급 프로그램
인적자원, 사회보호, 지속가능발전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교육 · 식수 접근성 · 보건·영양 · 사회보호 · 정주환경 개선 · 재해, 기후변화 · 평등·젠더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학교, 대학 건설 프로젝트 · 제2차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 (PUDC 2) · 의료시설 건설·의료기기 지원 프로젝트 · 가족 보호 수당 프로그램 · 임시보호소 지원 프로그램 · 마을 근대화 프로그램(PROMOVILLES) · 기업가정신 기금
거버넌스, 제도, 평화·안보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행정 개혁 · 법치, 인권, 정의 · 평화 및 안보 · 영토 통치 강화 ·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근대화 지원 프로그램(PAMA) · 경찰 지원 기금 · 군·안보인력 지원 기금 · 국경지역 및 국경도로 근대화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2018), Plan Sénégal Émergent-Plan d' Actions Prioritaires 2019-2023

□ 수원 체계

- 경제재정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조 체계화 및 원조조화 달성을 위해 노력중
- '19년 대선이후 수원총괄기관이 재정부에서 신생부처인 경제기획협력부(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Cooperation)로 이전되었으며, 대통령실 기술협력국(Direction of Technical Cooperation)이 기술협력 부문을 주관

□ 공여국 협력 체계

- 당초 재정부가 무·유상원조를 총괄하였으나, '19.2월 마키살 정부 내각 개편을 통해 재정부에서 재정예산부(Ministry of Finance and Budget) 및 경제기획협력부로 이원화하여 MFB에서 유상원조의 예산관리 및 면세통관 처리, MEPC에서 대외원조 총괄 및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
- MEPC는 대외원조 정책 수립, 신규사업 약정 체결, 모니터링 및 평가, 공여기관과의 조정 등을 실시하며 세네갈 각 부처와 공여기관 간 개별 사업 발굴 및 실시에 따른 분절화를 방지하고자, 대내외 조정 기능을 강화
- 이에 따라, 당초 담당부처와의 R/D 체결(재정부 협조 서명)에서 MEPC와 신규사업 R/D 체결 후 담당부처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절차 변경
- '18년에 추진된 공여 조정체계 개선을 통해, 세네갈 내 공여국 및 공여기관은 원조효과성 및 원조조화 증진을 위한 공여국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
- 공여국협의체 집행위원회(COMEX)*, 주요 공여국 협의체(G15), 전체 공여국 협의체(G50), 분야별 공여국 협의체(14개 분야 및 3개 세부 분야(기초교육/직업교육/응급) 등 총 17개), 테마별 워킹그룹 등 운영중

- 공여국 및 기관들은 원조조화를 위한 **공여주체회의**(G50, Enlarged Group of Financial and Technical Partners in Senegal), **공여기관 사무국회의**(G15, Cooperation Committee of Financial and Technical Partners in Senegal) 및 **분야별 작업그룹**(Thematic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조
- 우리나라(KOICA)는 '18년부터 G15에 초청받아 참석 중이며, 이외 보건, 농업, 교육(기초교육) 등 분야별 공여국 협의체에 각각 참여 중
- * COMEX : 미국, 스페인, EU, 세계은행, UN시스템 대사(그에 준하는 직위의 대표자)로 구성
- * G15 : 15개 양자 및 다자 공여기관으로 구성되며, 한국(KOICA), 미국(USAID), 일본(JICA), 프랑스, 이탈리아(이탈리아원조청), 캐나다(CIDA), 스페인,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LuxDev),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EU, UNDP, FAO, UNICEF(의장국) 참여중

3 수원국 거시 분석

□ 신용위험

- (외채 현황) 대규모 인프라 구축비용 및 코로나19 재정지출 등을 외채로 조달함에 따라 '19~'21년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70% 수준으로 상승
- 다만, 외채 중 양허성 차관 구성비율 등을 고려시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신용등급)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는 세네갈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OECD 5등급, Moody's Ba3, S&P B+)

□ 재정건전성 관리능력

- (재정수지) 코로나19 재정지출의 일시적인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년 $\Delta 6.2\%$ 를 기록하였으나 '21년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세네갈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

경제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e	2021 ^f
재정수지/GDP	%	-3.0	-3.6	-3.8	-6.2	-4.5
경상수지	백만 달러	-1,526	-2,215	-2,153	-3,021	-2,799
경상수지/GDP	%	-7.3	-9.5	-9.1	-12.4	-10.0
상품수지	백만 달러	-2,702	-3,396	-3,280	-2,838	-2,877
수출	백만 달러	3,286	3,866	4,138	3,832	4,258
수입	백만 달러	5,988	7,262	7,418	6,670	7,135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2,709	3,406	3,238	2,341	2,427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2,958	15,846	16,896	18,912	20,450
총외채잔액/GDP	%	61.7	68.2	71.7	77.5	72.8
단기외채	백만 달러	1,202	925	1,698	872	-

주: 2020년 수치는 추정치, 2021년 수치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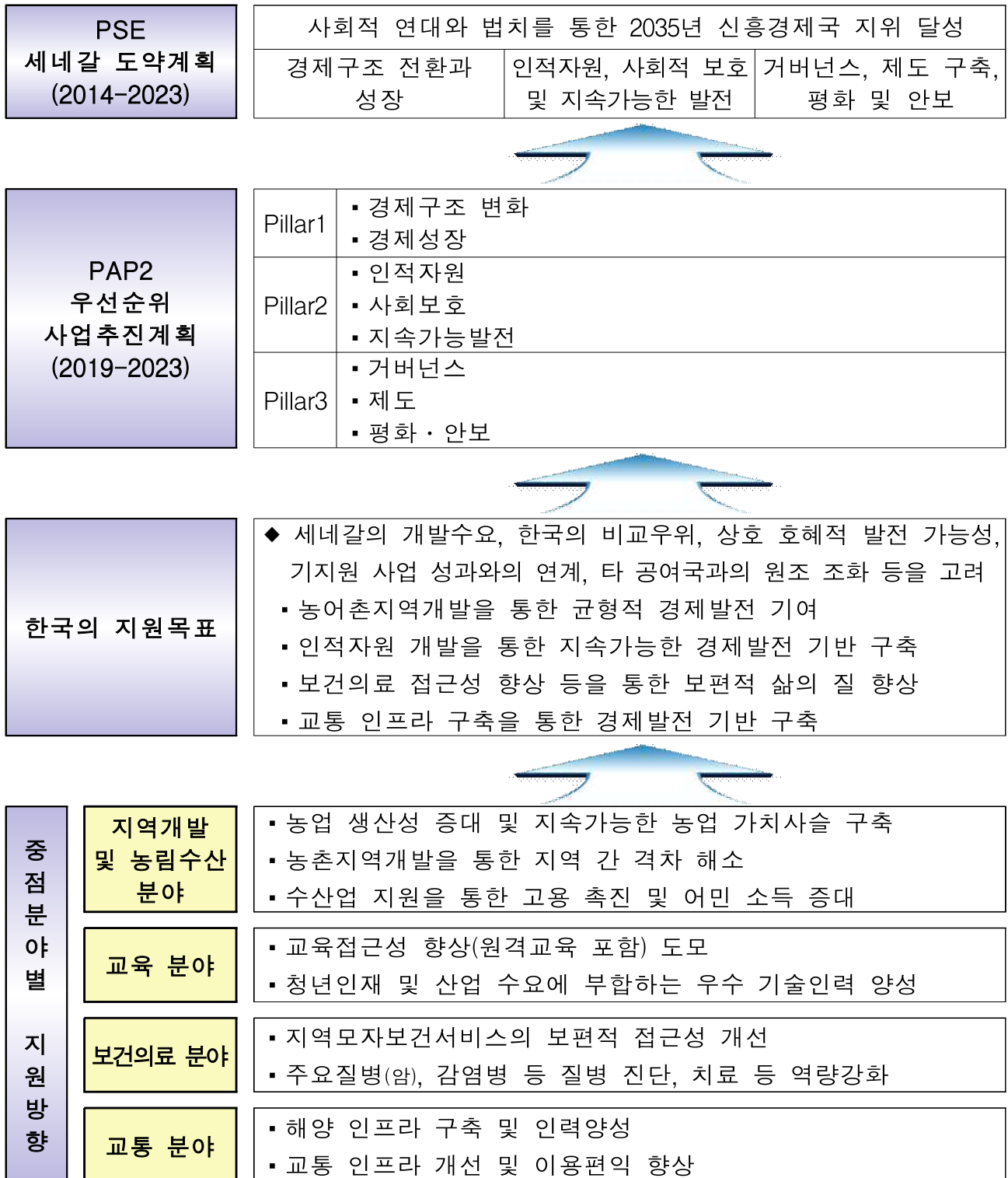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1세계국가편람」

□ 정치적 위험

- (거버넌스) '60년 독립 후 세 차례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지는 등 아프리카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
- 최근 공화국연맹(APR: Alliance pour la république) 소속 마키살 대통령이 연임('19.2월)에 성공,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거버넌스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이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I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 (지원 목표) ‘세네갈도약계획(PSE, ’14-’23)’에 따른 ’35년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과 성장, ▲인적자원, 사회적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거버넌스, 제도 구축, 평화 및 안보 관련 세네갈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

- (중점협력분야 및 선정사유) 세네갈의 개발수요, 한국의 비교우위, 상호 호혜적 발전 가능성, 기 지원 사업 성과와의 연계,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 4개 분야를 선정
 - ① (지역개발 및 농림수산) 농업생산성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 수산분야 지원 통한 고용 촉진 및 어민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 발전 격차 해소 및 균형적 경제발전에 기여
 - ② (교육) 교육접근성 향상(원격교육 포함), 청년인재 및 산업수요에 기반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반 구축
 - ③ (보건의료) 기초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향상, 주요질병(암) 및 감염병 등 질병 진단, 치료 등 역량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통한 기본적 삶의 질 향상
 - ④ (교통) 해양 및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양성 등을 통한 경제발전 기반 구축

(1) 지역개발 및 농림수산 분야

□ 개발수요

- (분야 수요 개 관) 노동인구의 56%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 총액의 15.8%(‘20) 차지하는 등 농업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주요 농산물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20) 생산성 증대가 시급

* 농촌지역 거주 인구 비율 : 54.2%(‘15) → 51.8%(‘20)

- 또한, 통조림 제조, 땅콩 기름 생산 등 일부 제조업 생산 시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공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

* PSE의 일환으로 산업화를 포함한 경제 구조 개선 및 성장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18.11월 이래 다카르 인근 잠나지오에 산업단지를 설치해 운영중

- (농업 수요) 전체 인구의 약 51.8%(‘20)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도·농간 소득 및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격차가 큰 바, 균형적인 경제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및 농업 발전이 필요

- 농업기술 선진화 도입, 경작 가능한 환경 조성, 시장 경쟁력 강화, 가치사슬 활성화, 우수 농업 인력 양성 등 농업 생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노력 필요

- (수산업 수요) ‘18년 기준, 수산물은 총 수출액의 20.7%, GDP 1.6%를 차지하였으며, 세네갈 국민의 주요 영양원*

* 세네갈 인구의 단백질 섭취량의 70%를 차지하며, 세네갈인은 1인당 연 약 29kg의 생선/해산물을 섭취(ANSD, 15)

- 세네갈 정부는 과도한 조업 방지, 국내적 수산물 수요 충족,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역점

- 세네갈 도약계획(PSE)과 어업·양식업 개발섹터정책 (LPSDPA)을 통해 수산업 발전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이 중 PSE는 양식업의 발전을 통해 공급 증대가 목표
 - PSE는 연간 어획량의 약 10%를 양식업을 통해 생산하고, '23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 창출, '21년까지 3만 1천 톤, '23년까지 4만톤 생산을 목표로 설정
- PSE 가이드라인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우선과제로 설정
 - 세네갈 정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화 및 가치사슬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어업자, 수산물 판매자 및 어획물의 가공·운반 업자들의 생산 최적 조건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
- 아울러, 수산업 관련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수산물의 품질을 제고시키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 개발 목표를 설정

<어업 및 양식업 개발을 위한 전략행동계획: 수산물 가격 안정화 촉진방안>

가격 안정화 목표	전략 축	행동방안
수산물 가격 안정화 촉진	수산업 분야 가치사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운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추진 ●수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강화 ●연구개발 기능 강화
	수산업 구조조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 지원 펀드 편성 ●수산업 및 관련 산업촉진금융의 내실 있는 활용
	공업 및 영세어업용 가공 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업 기술 관리촉진부서 강화 ●영세어업을 위한 시범 사이트 구축 ●가공식품 대상 시범 중앙시장 설립 ●원산지 표기를 시행

출처: République du Sénégal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과거 성공적인 농·수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발도상국 대상 관련 분야 사업 경험 보유
 - 농산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 농어촌 생활여건 향상, 농촌 주민 역량강화 지원, 수산업 등 농수산 분야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
 - 성공적인 농촌종합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기 위한 노력 지속중
- 또한 성공적인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경험을 토대로 산업단지 등 제조업 기반 구축 경험을 세네갈과 공유 가능

[2] 교육 분야

□ 개발수요

- '00년 이후 연간 교육 예산 평균증가율이 12%에 달하는 등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민 평균 교육수혜 연수가 3년('17년)에 불과
- 초등학교 등록률이 84.8%('13년)에서 87.3%('17년)로 향상, 96.3%('23년) 목표
 - 하지만, 문해률 향상에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여성 및 농촌 인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
- * 세네갈의 만 15세 이상 문해율은 51.9%이며, 남성(64.81%) 대비 여성(39.79%)의 문해율이 현저히 낮음(WB, '17).
- 인구의 52% 이상이 20세 미만으로 주요 교육 대상이고 인구의 52%('20)가 농촌지역에 거주, 여러 개선현황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초등 교육 달성 및 유지가 어려운 상황

- 중등·고등교육 총등록률은 각 46.2%(secondary), 13.1%(tertiary)('19)로써 사하라이남 총등록률 평균인 43.3%, 9.4%('18)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육 접근성의 지역격차 존재
-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양성 정책을 추진하여 매년 급증하는 고등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추진 중

* (대학교 입학생 수) '17년 기준 10만명 당 1,099명으로 UNESCO 권고기준인 2,000명에 크게 미달

- 직업교육훈련 분야 교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경제구조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현재 5개 국공립대학은 다카르, 생루이 등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세네갈 정부는 PSE 목표 달성을 위해 PAP에 교육훈련을 6대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교육 및 직업훈련 전략계획(PAQUET, '13-'25) 및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 계획(PDESR, '13-'22)을 수립

* (PSE 두번째 전략축) 인적자원 사회적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산업수요와 고등교육을 연계하고, 직업기술훈련 개발을 도모하며, 평생훈련을 조직 및 장려할 방침

* (PAQUET 실행목표) ①보편적 교육권에 부합하는 기초교육 수립 ②민관협력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직업기술교육 제공, ③교육 및 학습의 질 개선 ④과학, 기술, 혁신(STI) 교육의 발전 촉진 ⑤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관리 분권화 강화 ⑥교육 부문 중단기 효율성 강화, ⑦교원의 생산성 향상, ⑧교육시스템에서의 알파벳 표기를 넘어 국어의 점진적인 활용 개발

* (PDESR 10대 개혁과제) ①고등교육 기관 설립을 통한 대학교 확산 및 기존 대학 인프라 복원 ②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교육 개발 ③교육 및 연구에 ICT 기술 적용, ④학생 육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⑤교육 및 연구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 및 사회적 대화 도모 ⑥교육 및 연구 커리어와 행정, 기술 서비스 커리어 장려 ⑦고등교육 및 연구 거버넌스 개선 ⑧연구 및 이노베이션에 새로운 원동력 부여 ⑨"세네갈 유학" 레이블 홍보 ⑩인적자원 개발 및 도약의 기반이 될 지식 생산을 위한 고등교육 및 연구에 투자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경제개발계획과 교육개발목표 연동으로 **산업인력 양성** 경험 보유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부존자원 없이도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 평가
- 특히, **기술 직업훈련제도** 구축, **교육훈련모델** 및 **교수법** 개발, **직업훈련원 운영관리**, 풍부한 전문가 풀(pool) 등 강점을 보유
 - IT, 자동차 등 과학기술 분야 내 높은 인지도와 인프라 축적 및 기술경험을 토대로 정책제도,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개발방법 전수가 가능
- **원격교육** 제공 통한 **교육접근성 향상** 경험 및 노하우 보유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격차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격교육 지원 가능

(3) 보건의료 분야

□ 개발수요

- MDGs 목표 중 전반적인 모자보건 지표의 개선은 달성하였으나,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여전히 **모성과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이 높으며 특히 도농 간 큰 격차가 존재
 - * (모성 및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10만명 당 236명, 영유아 사망률 천명 당 56명을 기록함. 특히 모성 사망률의 경우, 도농 간 큰 격차가 존재함. (도시(다카르 주) 천명 당 58명, 교외(탐바쿤다 주) 268명)(세네갈 통계청, '17)
- 세네갈 정부는 보건위생 분야 증진을 통한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제시
 - 세네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인구 분산정책 달성을 위하여 보건영양, 감염병 대응 등 기초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

* (PSE 공공보건 증진 목표) ①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 ② 질병 예방 및 퇴치 증진 ③ 모자보건 증진 ④ 모자 영양상태 증진 ⑤ 지역보건역량 강화 ⑥ 보건 거버넌스 개선 등

< PSE 보건분야 주요 한계점 및 향후 도전과제 >

구분	한계점	도전과제
공중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서비스 역량 부족 지역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직원훈련 개발 및 의료시설 강화 부처 및 공여주체 간 협력 강화
진료소 및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력 및 기자재 부족 지역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력의 균등한 지역 배치 의료기자재 등 자원 증대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불평등 및 접근성 문제 수요 및 실적에 맞는 관리 및 재정 지원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불평등 해소 활동 및 실적에 맞는 지원 관리 강화(예. 계약)
민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카르 또는 Thiès 등 도시에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부문 개발 장려(특히 2차 기관) 재정적 접근성 도모
의료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기자재 취약 의약품 미비(특히 농촌 지역) 위조품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유통 경로 개선 의약품 관리 강화 횡령 및 부패 방지
관리 및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 접근성에 한계 과도한 관리비 의료인력 취약한 훈련 및 지역 불평등 전략적인 관리의 조직화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및 민간 건강보험 개발 관리비 감축 훈련 확장 및 지역 불평등 해소 시스템의 전략적인 관리 강화
모자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 의약품 미비(특히 농촌 지역) 기초 보건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력의 균등한 지역 배치 기초 인프라 마련 및 인력 양성 의약품 및 관련 기자재 확충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Document Sectoriel. Plan Sénégal Emergent. Santé”. 2013 / 한국국제협력단. 2015. 아프리카지역 불어권 5개국 협력방안 연구-세네갈

- 또한, 세네갈 정부는 국가보건사회개발계획(PNDSS, 2019-2028) 및 세네갈 실험실 전략계획(‘19-’23)을 바탕으로 질병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중

* (PNDSS 목표) 모든 개인 모든 가정 및 모든 지역사회가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양질의 보건 및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강화 및 경제·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건강과 복지를 보장

전략방향1(OS1): 보건 및 사회보장 거버넌스 및 자금조달 강화

전략방향2(OS2): 보건 및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개발

전략방향3(OS3): 사회 보장 확대 및 강화

* (실험실 전략계획 전략) ① 국가실험실 정책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 개선 ② 전 지역 양질의 실험실 접근 보장 ③ 항생제 내성 감시 강화 ④ 국제 표준의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시스템 구현 ⑤ 실험실 내 장비 교정 및 유지보수 체계 강화

□ 한국의 원조역량

- (보건의료) 한국은 보건의료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단위 의료시설 확대, 의료 인력의 역량강화, 의료재정 지원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
- (감염병 대응) 한국은 질병관리청(KCDA)를 중심으로 국가 실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와 생물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
- 또한,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제적인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경험도 보유하는 등 국가감염병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경험 및 노하우를 확보

[4] 교통 분야

□ 개발수요

- 세네갈은 '20년 AfDB의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지수(AIDI) 15위(54개국)을 차지하는 등 역내 타 국가와 비교 시 개발 정도가 높으나, 교통 인프라 분야의 개선은 비교적 더딘 상황
- *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지수('20년) : 세네갈 29.2점/100점 서아프리카 평균 21.6점
- * AIDI 세부 교통종합지수('20년) : 세네갈 3.65점 39위
- 아울러, 인프라 부문 세계경쟁력지수('18)에서 전체 140개국 중 111위 (51.8/100점)를 차지, '35년 신흥경제국 지위 달성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확충 및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
- 서아프리카 내 물류·항공·자원개발·비즈니스허브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이뤄 왔으나, 무역활동의 95% 이상이 해양 수송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경제적으로 항만 분야 발전을 지원 중

- 이에, 세네갈 정부는 PSE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 및 로지스틱 기반 구축 지원을 목표로 제시

* (PSE 첫번째 전략축) 경제구조 전환과 경제성장

<PSE 교통 인프라 확충 목표>

구분	목표
도로교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0km 포장도로 • 4,000km 지방도로 건설 • 7개 다리 건설 • 버스 터미널 현대화 및 건설
해양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터미널 및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 항구 재개발
철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3km 철도 재구축 • 표준 게이지 철도 신축
항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비행장 재개발

자료: République du Sénégal. “Senegal Emerging Plan.” 2014.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국가 교통망을 확충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
 - 도로 분야에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및 도로교통 시스템 개발·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쟁력을 확보
- 한국은 육상, 수상, 항공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지속 해왔으며, 이를 통한 교통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19년 WEF 세계경쟁력 지수 교통 인프라 부문 6위로 평가

(1) 지역개발 및 농림수산 분야

□ 기본 방향

- 식량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
-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 수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인구 수
- (SDGs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 (SDGs 2.3.2) 소규모 식량 생산자의 평균 소득(성별, 지역별)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세네갈 정부의 세네갈 도약계획(PSE '14'23), 농업발전국가전략(PRACAS '14'17)과 어업·양식업개발섹터정책(LPSDPA '16'23)의 개혁과제 이행 지원
- (식량안보 확보)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
 - 세네갈농업 부흥정책 및 쌀 국내 소비 촉진 정책 기조와 상응하여 농업 기계화,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지원
-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 농업 가치사슬 전반의 강화를 통해 농업의 총 요소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 (생산요소 향상) 투입재 우량종자 개발자원을 통한 농업 생산품의 양적확대 지원

- (농업 생산성 증대) ▲농업기계화율 증대를 통한 농작업 효율성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세네갈 특성에 맞는 영농기술교육 제공
 - (수확 후 관리단계 지원) ▲수확 후 관리시설을 구축하여 생산품 손실을 감소, ▲수확 후 관리기술 및 농민조직 운영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금융 접근성 강화) 농업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업금융 협력체계 구축 예정 특히 수원국의 농업금융 자체조달 운영을 촉진하여 활발한 영농자금 운용 도모
 - (농촌지역개발) 기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소득증대 특수사업 지원) ▲고소득작물 개발 및 품질 향상지원, ▲공동판매방식 도입 가공 및 유통과정 개선 지원
 - (마을환경개선) 마을 식수 개선, 농경지 연결 소규모 시설 구축 등의 마을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 (수산업 발전) 수산업 분야 발전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업 양식 기술 및 경험 전수
 - (제조업 기반 지원)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등 농수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및 기타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 * 예)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구축에 차관 지원(진입도로, 전력, 상하수도 등)

[2] 교육 분야

□ 기본 방향

- 교육격차 완화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산업인력 양성

○ ICT 역량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4.3.1)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 성인의 수
- (SDGs 4.4.1) 기술 유형별 ICT 활용 능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수)
- (SDGs 4.c.1) TVET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비율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양질의 교육 제공) 효과적인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정보화 및 원격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 양적·질적 확대 및 도농간 교육 불균형 해소
 - (접근성 강화)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를 통한 교육접근성 향상을 도모
 -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 학습자의 필수역량인 ICT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문해율 강화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
 - (원격교육 활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교육 정책수립, 교원 역량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을 지원
- (산업인력 양성) ICT, 관광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교원 역량강화 및 여성청소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
 - (직업교육 훈련 강화) 산업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직업훈련교사 역량강화,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직업교육 훈련분야 개발에 기여
 - (창업프로그램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 통해 유망 신산업 분야 개발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업과의 파트너십) 아국 기업진출현황을 고려, 협업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현지 기업체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육훈련과 산업수요가 긴밀히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

[3] 보건의료 분야

□ 기본 방향

- 지역모자보건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개선
- 주요 질병(암), 감염병 등 질병 진단, 치료 등 역량강화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3.1.2) 전문인력에 의해 분만한 임산부 수(비율)
- (SDGs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 (SDG 3.3.2, 3.3.3, 3.3.5) 주요 감염병 진단 또는 치료 수혜자 수(비율)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기초 보건의료체계 강화) 모자보건 관련 인력 양성 및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기초 보건의료체계를 강화
 - (의료접근성 향상) 보건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 모자보건지표 개선에 기여
 - (보건인력 역량강화) 산전·산후 관리서비스 및 전문인력에 의한 분만 확대 등을 위해 보건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추진
 -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완화하고자, 지역사회 주요인사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활동 전개
- (주요 질병 및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주요 질병(암) 및 감염병 등에 대한 진단 역량강화 및 치료 수단 확보 등 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
 - (주요 질병 진단·치료 강화) 현대식 진단·치료 장비를 갖춘 의료시설 구축, 의료인력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요 질병 치료에 기여
 -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 역량강화를 통해 세네갈 국가 실험실 관리 및 생물안보·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보건안보 수준 강화 및 국제보건규약(IHR) 책무이행에 이바지

[4] 교통 분야

□ 기본 방향

- 해양 인프라 구축 및 유관인력 역량강화
-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이용편익 향상

※ 유관 SDGs 세부목표

- (SDGs 11.2)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 제공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해양 인프라 구축) 항만 운영, 하천 준설 관리, 주요 물류 설비 마련 및 해양 물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무역 활성화, 국토의 균형 발전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
 - (인프라 구축 지원) 항만시설 및 해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실시, 물류시스템 구축 시 우리나라 ICT기술 활용하여 기술이전 추진 고려
 - (교육훈련 제공) 해양 인프라 운영을 위한 유관분야 인력 양성 지원
-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격오지 교통물류망 연결, 종합적인 교통·물류 체계 확충 지원과 이용 시스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 통합발전 및 나아가 서아프리카 물류허브 구축에 기여
 - (도시/거점 연결) 주요 도시 및 거점(산업단지·공항·항만)의 연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추진, 내륙수로 등 내륙수송 체계 구축에도 기여

세네갈 장기개발목표 : 지식 기반 다각화된 경제 실현, 문화강국 실현, 국민 삶의 개선 및 환경보호를 위한 녹색개발 계획 추진

CPS 목표 : 분야별 목표 포괄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성과 지표
지역 개발 및 수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성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 ○ 농촌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 수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어민 소득 증대 - (SDGs 1.1.) 2030년까지 하루 생계비 \$1.25 미만 인구 등 극심한 빈곤 종식 - (SDG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요소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과 소규모 식량생산자,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업자 및 어민의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두배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간 불평등한 발전현황 및 소득격차 ○ 부족한 농업 인프라 및 낮은 농업 생산력 ○ 낮은 수산업 생산력과 부족한 콜드체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경제발전 및 소득증대 ○ 농업생산성 강화 ○ 수산업인프라 개선 및 가치사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소득증대율 ○ 농업생산성 증가 비율 ○ 수산업 생산성 증가 비율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기술교육을 통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 청년 창업, SME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SDGs 4.3) 남녀 모두에게 양질의 기술 및 직업훈련, 고등교육 접근 제공 - (SDGs 4.4)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술을 보유한 청장년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환경 개선에 대규모 자원 소요 - 세네갈 내 고등 및 숙련기술 인력 수요의 제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 교육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발전계획 수립 -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문기관의 운영에 국제적인 품질인증체제 적용 - 고등교육기관내 이공계 전공자 증가 - 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 역량 강화 - 국가자격검정제도 도입-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증 직업기술교육 제공기관 증가 - 고등교육기관 이공계 졸업자 비율 증기 - 양질의 고등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수혜자 증가 - 원격교육 수혜자 증가
보건의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통제 및 관리환경 개선 - (SDGs 3.1) 산모 사망률 10만명당 70명 미만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력 및 보건정책 인력 역량 미흡 - 감염병 대응 관련 정부의 지속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모니터링 센터 설립 - 의료인 양성 제고 및 교육과정 개편 - 지방 위생시설 접근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을 지원받은 의료진 수 - 지방 공립병원 수

	<p>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3.2) 신생아 사망률을 1천명당 12명 이하로 감소 - (SDG 3.4) 주요 감염병을 종식 및 질병 방지 			<p>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된 실험실 수 증가
교통 분야	<p>○교통(도로, 철도, 항공)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실행가능한 정책 및 제도 수립, 교통시설 유지/보수 관리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11.2)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철도(단선) 인프라가 미흡하며, 확장 및 개량에 대규모 재원 소요 - 담당인력의 빈번한 교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분야 연구 인력 양성 - 혁신적 대중교통 시설(BRT 등) 연구 및 제시 - 도로 복구, 도로 운영, 관리 모니터링 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시설의 교통전문화과 개설 여부 - 교통 시설 확충 및 개선 정도 - 교통혼잡도 개선
주요 가정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네갈 내 정권 교체에 따른 잦은 정부 인력 교체 2. 예산 적자에 따른 재무위기 및 경기 침체 발생 3. 법적, 제도적 장애물 발생 4. 기상조건 악화 및 주요 재난(대기오염, 홍수) 발생 		

IV. 이행전략

□ 타 공여기관과 원조 조화

- (양자 협력사업 모색) 분야별 세네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타 공여기관과 공동협력방안 모색하여 분야별 원조조화 노력 및 사업효과 증대
- (다자협력)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AfDB, WB 등 다자은행 프로젝트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WFP 등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원조 분업 및 협업을 통해 사업 효과성 강화 및 지원 파급효과 제고

□ 유·무상 연계 강화

- (유·무상 연계)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주력하며 유·무상원조 연계 강화 모색

□ 민관협력 활성화

- (CSO 협력) 현지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 효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인력과 현지 보건의료체계 역량강화, 민간 교육 시설·민간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위한 현지 활동 CSO와의 협력 활성화 모색
- (기업 협력) 세네갈 진출 국내기업 및 현지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효과 극대화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 우리 기업 진출 분야(수산, 방산 등) 세네갈 인재 초청 사업 등 시행

□ 원조일치

- 세네갈 도약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과의 연속선상에서 중점협력 분야별 중장기 지원 전략 수립

- 세네갈 정부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세네갈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사업간 연계 가능성 검토
 - 사업 간 연계 및 범분야 포괄적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프로그램형 구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세네갈 **국가시스템**(공공재정운용, 공공조달시스템 등) 활용 등 사업방식 다각화 노력을 확대하되, 세네갈 측의 재정관리 역량, 재정운용의 투명도, 분야별 거버넌스 개선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 추진 검토하고 관련 역량강화 지원

□ 정책부합성 제고

- (그린뉴딜)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따라 세네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확대
 - ▲온실가스 저감, ▲기후적응력 향상, ▲교차(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 (디지털뉴딜) 우리 정부의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을 세네갈 현지 실정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세네갈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
 - ▲디지털 공공서비스 강화, ▲교통, 보건·의료 등 주요 분야에 ICT 융합 확대, ▲경제·사회 인프라의 디지털화 지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세네갈의 지속가능발전(SDGs)에 기여

□ 원조조화

- 중점협력분야 해당 **공여국회의 및 기술작업그룹 회의**, 수원국 주관 **개발 포럼**, 국제기구 주관 **개발 회의** 등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 공여국회의 협의체와 성공사례 공유, 정책대화·섹터지원 전략 마련에 동참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유·무상 사업간 연계, 각 부처 협력사업간 협업, 협력사업과 봉사단 파견 및 연수생 초청 사업간 시너지 효과 도모 등 **형태별 사업간 연계**를 장려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파급효과 도모

- 특히 농업 분야 사업에 KOICA, 농촌진흥청(KOPIA, KAFACI 등),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독자적으로 참여중인바, 각 사업간 연계 및 통합 노력을 통한 우리 원조 효과성 및 가시성 증진

□ SDGs 기여

-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분야·방식·체계에 SDGs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이후 추진 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행함으로써 SDGs 달성에 전략적 기여
 -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
 - GGGI 세네갈 사무소와의 협력사업발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쌀 등 각종 작물 개발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수산업 양식 기술 및 인프라 전수 등을 통한 수산업 분야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을 증산하여 빈곤 퇴치에 기여

V.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고 ODA 사업 발굴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리스크 매트릭스>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정치적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분기별
2.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 ○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분기별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 ○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분기별
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 ○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 ○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 시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	연 1회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 ○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	상 시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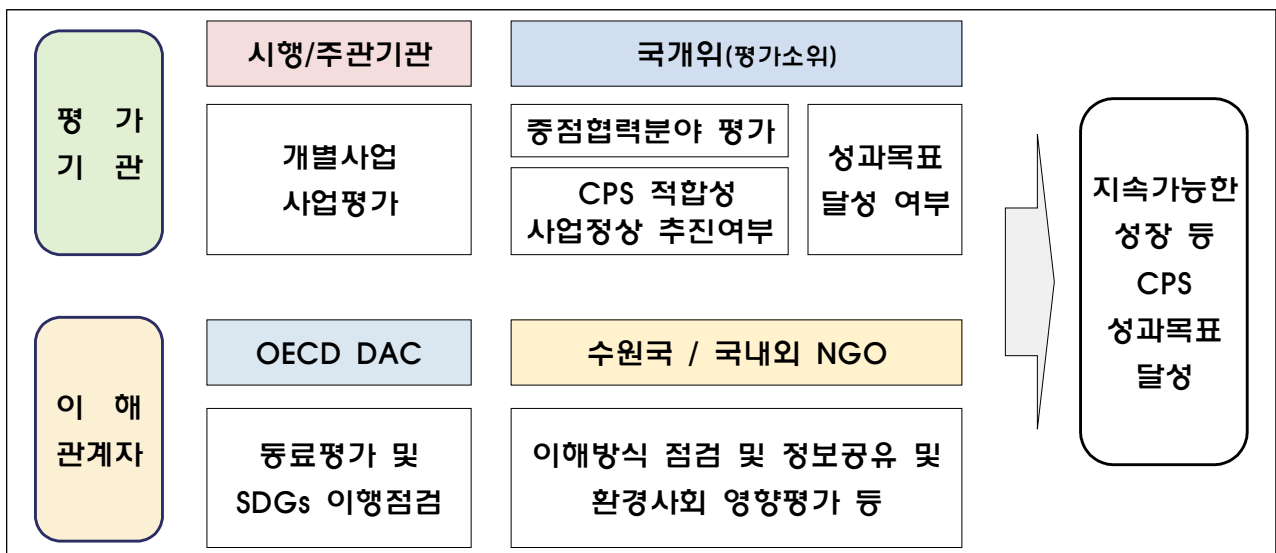
2 평가 계획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1 지원 현황

□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지원 현황

- (총괄) 우리나라 지난 10년간('11-'20) 총 2,594억 원을 세네갈에 제공하였으며, 이 중에서 유상원조 비율이 전체 지원액의 약 64.2% 차지
- 원조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전체의 85%를 차지
- 주요 시행기관은 EDCF(62.1%), KOICA(30.8%), 농촌진흥청(2.6%) 등이며, 그 외 약 14개 기관이 세네갈 원조에 참여

<한국의 對세네갈 지원 추이('11-'20)>

(단위: 백만 원)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https://www.kodaportal.go.kr/portal/main> (검색일: 2021.09.10)

- (분야) '16~'20년 기간 우리나라의 對세네갈 ODA지원 총액 중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은 실적 95%, 예산 99%로 선택과 집중 경향이 뚜렷한 추세
- 종합적 재원 집중 차원에서는 양자원조 중 최소 70% 이상을 중점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CPS상 중기재원계획에 부합하나, 분야별 재원배분 비율 측면에서는 계획 대비 간극이 상당한 것으로 관찰
- 특히 '19~'20 예산은 기존 지원 계획(2016~2020)과 비교할 때 분야별 재원 배분 비율에 큰 차이

< 세네갈 2기 CPS상 분야별 재원배분비율(안) 대비 실적 >

	구분	계획('16~' 20)	실적('16~' 18)	예산('19~' 20)
중점 협력 분야	물관리 및 보건위생	11%	7%	38%
	지역개발 및 수산업	15%	14%	26%
	교육	11%	7%	8%
	교통	62%	68%	27%
	기타 분야	-	5%	1%
	합계	100%	100%	100%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대내용 세네갈 국가협력전략, p. 272

□ 일반

- (개황)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 연안,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위치하여 감비아를 둘러싼 국토 형태로 한반도 크기 정도. 인구는 1,719만 명⁽²¹⁾(월로프족, 세렐레족, 폴라니족 등),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 신도

□ 정치

- '19.2월 대선에서 공화국연맹(APR: Alliance pour la république)의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이 레우미당(Rewmi)의 이드리사 세크(Idrissa Seck)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
 - 현재까지 세네갈에서는 '00년 사회당(PS)에서 사회민주당(PDS)으로, '12년 사회민주당(PDS)에서 공화국연맹(APR)으로 2회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
 - 그러나 '19년 대선의 경우, 야권 유력 대선주자였던 칼리파 살(Khalifa Sall)과 카림 와드(Karim Wade)⁴⁾가 석연치 않은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헌법재판소로부터 대선 출마를 금지 당함
 - * 이러한 사법적 조치에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비판도 존재⁵⁾
- 여당 연합인 Benno Bokk Yakaar가 의석 대부분(76%)을 차지, 압둘라예 와드 前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연합인 Manko Wattu Sénégal, 칼리파 살이 주도하는 정당연합인 Manko Taxawu Sénégal이 각각 제2당, 제3당의 위치를 차지
 - 세네갈에서는 수많은 군소정당이 활동 중으로, 선거마다 다른 연합을 구성하여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당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17년 총선에서는 14개 정당 및 정당 연합이 의회에 진출

4) 칼리파 살은 수도 다카르의 시장이었으며, 카림 와드는 압둘라예 와드 前대통령의 아들임.

5)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0 - Senegal,"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4. 13).

- EIU는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을 근거로 '22년 예정된 총선에서도 현재 여당 연합(Benno Bokk Yakaar)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⁶⁾
-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정착되었으나, 최근 야권 인사들이 대선에서 배제되고, 총리직이 폐지되고, 선거법이 야당에 불리하게 개정되는 등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점점 어려워 우려되는 상황
- EIU는 마키 살 정권이 '19년 대선 과정에서 잃어버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⁷⁾
- '18년 개정된 선거법은 대선 후보의 경우 전 국민의 0.8%, 정당의 경우 최소 7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0.5%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선거에 출마 가능하도록 규정 → 야당 및 소수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 가능
- 또한, '21.3월 야당 지도자(우스만 송코, '19년 대선 시 3위 득표)에 대한 고소사건(성폭행 혐의 등)으로 촉발된 시위가 격화되어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정국의 불안정이 발생

□ 경 제

- (경제규모) '18년 기준 총 GDP 235억불, 1인당 GDP 1,441불 규모의 중저소득국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중
- '16년 이후 GDP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총 GDP는 258억불, 1인당 GDP 1,494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14년부터 매년 6% 이상 고성장하고 있어 아프리카에서도 성장률이 높은 축에 속하며, '20년에도 6%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⁸⁾
- 정부가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면서 유입된 외국인투자를 기반으로 경제가 고성장하였고⁹⁾, 앞으로도 에너지, 교통, 관광,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¹⁰⁾

6) EIU(2020). "Country Report Senegal 1st Quarter 2020," p. 4.

7) EIU(2020), "Country Report Senegal 1st Quarter 2020," p.4

8) Oxford Economics는 코로나19 사태 및 사우디-러시아간 갈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을 고려해 기존에 6.4%로 전망했던 세네갈의 2020년 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Oxford Economics(2020.4.6), "Country Economic Forecast Senegal," p.2.

9)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네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3.

- 석유·천연가스가 발견되어 '23년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인프라 건설에 시간이 필요하고 정부가 석유산업 경험이 없어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¹⁾

< 세네갈 주요 경제지표(국내경제) >

경제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억 달러	190	209	235	239	258
1인당 GDP	달러	1,235	1,321	1,441	1,428	1,494
경제성장률	%	6.4	7.1	6.8	6.0	6.8
재정수지/GDP	%	-3.3	-2.5	-3.6	-3.0	-3.0
소비자물가상승률	%	0.8	1.3	0.5	1.0	1.5
정부부채/GDP	%	47.5	61.2	61.6	63.3	63.1

주: 2019년 수치는 추정치, 2020년 수치는 전망치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수치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2020세계국가편람」

- (경상수지)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상품 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경상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유전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기계류 및 서비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적자폭이 악화²⁾
- 세네갈은 현재 식료품 및 원유 순수입국이나, 어업 역량 강화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인 어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3년부터 원유수출이 시작되면 경상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³⁾
- (외환보유액) 그동안 소폭 증감이 있었으나, '16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6년 14억 4,100만 달러에서 '20년에는 27억 8,6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환율 및 물가) 세네갈은 유로화에 고정된 세파프랑(Franc CFA)을 사용하고 있어 외환 리스크가 낮으며, 화폐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물가 또한 다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게 유지되는 중⁴⁾

10) EIU(2020), "Country Report Senegal 1st Quarter 2020," p.7

11) EIU(2020), "Country Report Senegal 1st Quarter 2020," p.1, 3, 7

12) Oxford Economics(2019.7.29), "Country Economic Forecast Senegal," p.3

13) EIU(2020), "Country Report Senegal 1st Quarter 2020," p.8

14) 세파프랑은 '1유로=655.957세파프랑'으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음. 조동희, 윤형준, 정민지(2020),

- **(외채현황)**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유로본드를 발행함에 따라 최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외채 대부분이 중장기 공공채무이고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역내 국가들에 비해 양호¹⁵⁾
- '19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GDP의 72% 가량을 차지하는 17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년에는 189억 달러(GDP 대비 73.4%)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네갈 주요 경제지표(대외 및 외채) >

경제지표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환율(달러당, 연평균)	XOF	593	582.1	555.7	587	583.1
경상수지	백만 달러	-795	-1,522	-2,789	-2,112	-2,296
경상수지/GDP	%	-4.2	-7.3	-11.9	-8.8	-8.9
상품수지	백만 달러	-1,964	-2,695	-4,042	-3,527	-3,753
수출	백만 달러	2,873	3,278	3,005	3,467	3,553
수입	백만 달러	4,837	5,973	7,047	6,995	7,30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441	1,829	2,334	2,624	2,786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0,422	13,984	15,217	17,202	18,909
총외채잔액/GDP	%	54.8	66.8	64.8	71.9	73.4
단기외채	백만 달러	590	1,204	924	1,622	-

주: 2018년 수치는 추정치, 2019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2020세계국가편람」

- **(국가신용)** 정부부채가 높고 경제 다변화 수준이 낮기는 하나, 높은 성장률, 낮은 외환 리스크등 을 고려하여 OECD와 Moody's는 각각 세네갈에 5등급과 Ba3등급을 부여

「서아프리카 세코프랑존 개혁 내용 및 지역통합 전망」, p.5, 12-13.

15) 한국수출입은행(2018). 세네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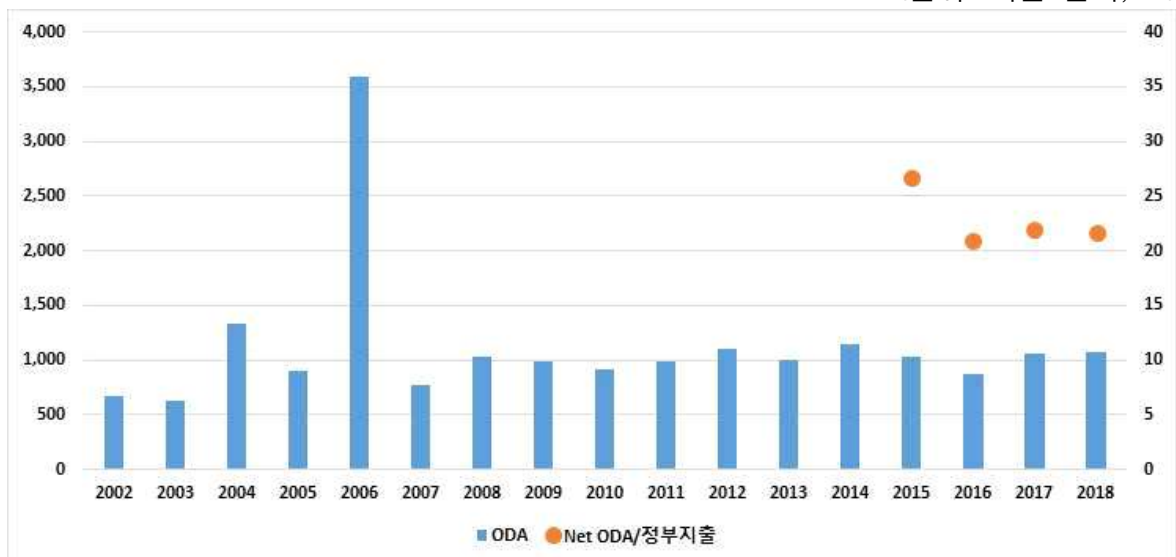
3 수원국 내 공여 활동

□ 수원현황

- 세네갈에 대한 ODA 지원은 '06년 35억 8,74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크게 감소하였고, 이후 '07년과 '16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지원액이 9~11억 달러 수준에서 소폭 증감을 반복중
- 중앙정부 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26.7%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며, '18년 기준 순 ODA가 중앙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집계

< 세네갈의 ODA 수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주: 1) ODA는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임.

2) Net ODA/정부지출은 정부지출에서 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OECD.Sta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최근 5년간(2014-18) 국제사회(DAC 회원국 및 다자기구)의 세네갈 지원 총액은 약 52억 달러이며, 양자 대 다자 지원 비중은 6:4 정도로, 총지출 누계 기준 양자지원 규모가 다자보다 큰 상황

< 세네갈의 ODA 수원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191	982	840	1,043	1,122	1,559
DAC 회원국	825	599	438	577	671	692
다자기구	357	360	373	446	404	843

주: 총지출액,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 주요 공여기관 활동

- 최대 공여국은 미국으로 지난 5년간 국제사회 지원 총액 중 20.3%를 제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프랑스(18.4%), 세계은행(IDA) (16.7%), EU(8%), 캐나다(5.6%)
- 우리나라는 제11위 공여국으로 최근 5년 총지출 누계, 1억 2,100만 불을 제공하여 세네갈 전체 ODA의 약 2.3% 지원
- 그 외에도 일본이 '17년 한 해 동안 1억 7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 5년 누계 기준 2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ODA의 4.7% 차지

< 세네갈: 주요 공여국 지원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미국	272	268	125	159	181	177	1,182
프랑스	315	130	107	148	246	290	1,236
세계은행	147	172	137	241	142	626	1,465
EU	93	56	79	51	123	90	492
캐나다	73	57	48	42	72	29	321

주: 총지출액 기준,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s

- 주요 공여국·기관 중 미국, 세계은행, EU는 세네갈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협력하고 있으며¹⁶⁾,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건강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이 중점분야로 언급

16) 프랑스는 EU의 개발전략에 따라 세네갈을 지원하며, 캐나다는 별도의 전략 미수립.

- 세계은행이 '20년 발표한 신규 국가협력 프레임워크는 세네갈의 신규 우선순위 사업계획(PAP: Plan d'Action Prioritaire '19-'23)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중점분야 설정¹⁷⁾
- 고려요소: ① 세네갈 국가개발계획에 소개된 정부의 우선순위 및 세계은행에 대한 지원 수요, ② '18년 발표한 체계적 국가진단(SCD: Systemic Country Diagnostic)에서 제시한 발전 전략, ③ 세계은행의 비교우위
- 아울러, '19년 수행한 국가 민간분야 진단 내용도 중점분야 선정에 반영¹⁸⁾. 각 목표별로 해당 목표의 내용과 연관 있는 SDGs 목표 제시

< 주요 공여국·기관의 세네갈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

공여국/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미국	Senegal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20 ¹⁹⁾	지원목표: 세네갈 국민의 삶의 질 개선 1. 포용적인 경제성장 2. 국민 건강 개선 3. 시민들의 효율적인 공공분야 참여
세계은행 (IDA)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Republic of Senegal FY20-FY24 ²⁰⁾	지원목표: 포용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 1. 생산성 향상•인구배당효과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2.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3. 증가하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
	Systemic Country Diagnostic of Senegal (2018) ²¹⁾	“빈곤 감소 및 공동 번영” 1. 경쟁력 강화 2. 공정성 및 회복력 향상 3. 천연자원 관련 위험 관리
EU	Stratégie Conjointe Européenne pour le Sénégal 2018-2023 ²²⁾	지원목표: 세네갈 부흥을 지원하고 신뢰, 연대,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도전에 대응 1.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2. 사회보호를 통한 국민 건강 및 교육 개선 3. 거버넌스, 안보 및 이주관리 강화

자료: 세계은행(2020).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Republic of Senegal for the period

17) 세계은행(2020).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Y20-FY24, p. 16-17.

18) 세계은행(2020).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Y20-FY24, p. 1.

19) <https://www.usaid.gov/senegal/cdcs>

20)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3439>

21)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336611539873310474/Senegal-Systematic-Country-Diagnostic>

22) https://eeas.europa.eu/delegations/uganda/55402/signature-du-document-de-strategie-conjointe-europeenne-entre-le-senegal-lue-et-les-etats_nb

FY20-FY24; 세계은행(2018). Systemic Country Diagnostic of Senegal; USAID(2012). Senegal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12-2020; EU(2018). Document de Stratégie Conjointe Européenne pour le Sénégal 2018-2023.

- EU는 '18년 세네갈을 위한 공동전략(Stratégie Conjointe)을 발표하였으며, 프랑스 등 12개 EU 회원국이 하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각기 다른 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지원²³⁾
- 개발에 관한 新유럽합의(New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및 세네갈부흥계획(PSE)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중점분야 설정²⁴⁾
- 각 전략목표별로 해당 목표와 관련된 SDGs 목표 제시
- 미국은 '12년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을 발표하였으며, 이 문서는 최초 발표 시 실시 기간이 '17년까지였으나, 현재' 20년까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
- 공여국·기관들은 '농림어업'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교통 및 물류, 보건, 물 공급 및 위생, 에너지, 정부 및 시민사회 등의 분야에도 지원 제공

23) 참여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이며, 해당 전략문서에는 EU 및 세네갈 대표도 서명함

24) Document de Stratégie Conjointe Européenne pour le Sénégal 2018-2023, p.3-4.

< 분야별 지원 현황: 상위 10위 >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2017년 평균 지원 규모	비중
농림어업	160.4	15.76%
교육	143.7	14.12%
교통 및 물류	124.6	12.25%
보건	119.2	11.72%
물 공급 및 위생	79.1	7.78%
에너지	64.1	6.30%
기타 다부문	56.9	5.59%
정부 및 시민사회	53.8	5.29%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보건	46.1	4.53%
환경보호	26.5	2.60%
기타	143.0	14.05%

주: 총 지출액, 실질가격(2018 constant price)기준.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

-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그림 2-7-2]와 같음.
- (미국) 교통 및 물류(24%)와 농림어업(23%) 분야를 주로 지원하며, 보건(17%), 인구 정책·프로그램, 생식보건(12%), 교육(6%) 순으로 지원
- (프랑스) 교육(26%)에 대한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교통 및 물류(17%), 물 공급 및 위생(10%), 농림어업(10%), 일반예산지원(10%) 순으로 지원
- (세계은행) 에너지(18%) 및 농림어업(17%)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12%), 교통 및 물류(11%), 물 공급 및 위생(9%)이 순으로 지원
- (EU) 물 공급 및 위생(28%)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어업(16%), 환경보호(11%), 정부 및 시민사회(10%), 에너지(8%) 분야에 대해 높은 지원 중

< 세네갈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 비중(2014-18) >

(단위: %)



주1: 2014~2018년 연평균 지원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중임.

주2: 총 지출액, 실질가격(2018 constant price)기준이며, OECD CRS 분류상 행정비용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산정하였음.

자료: OECD Statistics